

정치권 “박근혜, 진실 밝히고 용서 구해야”

국정농단 파문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린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각 정당은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을 비판하며 대국민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이 15가지 혐의를 구속된 지 53일만에 첫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은 불

민주·국민·바른·정의당 “사과가 순리”

한국당 “재판 공정해야”…공식논평은 없어

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 말씀을 하지 않은 채 범죄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첫 재판장에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솔한 대국민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공정하게 이뤄져 국민과 역사에

구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했던 것은 국민의 힘이었고, 바로 그 힘으로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정당은 23일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상선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오른쪽)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박근혜 10월께 1심 선고…재판 집중 ‘속도전’

뇌물 증인신문·직권남용 서류증거 조사 ‘투트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재판이 23일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간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사건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결국,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급기간은 산입하

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병합에 관바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 갈 예정이다.

이어 수요일과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

권남용·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식재판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회 가량 법정에 나와야 한다.

재판에선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물증거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최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정탁의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뒷문을 받는 등 병행행위를 한 사실은 몰랐다고 맞섰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금품지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도 삼성으로부터 그 같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을 보며 한마디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유어려울 막론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법정에서 받게 된 것은 크나큰 국가적 불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른정당은 국민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정을 담당할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음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뻔뻔함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장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설마 했는데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간 박 전 대통령이 한 해 명이라고는 영혼없는 발뻘뻘이었다”며 “이미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가 소망돼 구속됐지만, 오늘 법정에서는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전직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진 국민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국민기만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성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착좌한 기류를 감추지 못했다.

당에서 배출한 직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내려오자마자 구속돼 형사재판까지 받는 장면이 다른 당과 달리 공식논평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다만,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의 불행이고 재연되지 않아야 할 비극”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만 드린다”면서 “사법부 재판은 공정성과 형평성, 엄정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특검 수사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박계를 포함한 다수의 당 관계자들은 이날 TV로 박 전 대통령이 수감을 찬 채 법정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병운 기자

박-무표정·작은 한숨

최-적극 발언·격한 감정

‘40년 지기’ 법정서 눈도 제대로 안 마주쳐

박근혜 호칭…‘피고인·전직 대통령·대통령’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23일 오전 10시 1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서울법원 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장의 지시에 피고인 출입문이 열리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교도관과 법정경위의 안내를 받아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옆자리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찰과는 마주보는 자리다.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도록 마주보고 재판에 임하는 구조다. 재판부가 앉은 법대에서 보면 왼쪽, 방청석에서 보면 오른쪽 위치다.

그는 남색재킷과 청색계열 바지에 굽 높이가 5~7cm 정도 돼 보이는 구두를 신고 등장했다.

집게 핀 등을 이용해 ‘약식 올림머리’ 스타일까지 연출해 언뜻 보기에는 재일 종과 비슷한 모습이였다.

하지만 마치 넷을 잃은 사람처럼 얼굴은 무표정이었고 그의 왼쪽 옷깃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임을 나타내는 ‘503’이라는 수용자 번호가 적힌 등근배지가 달려 있었다.

부는 눈가와 초췌한 얼굴빛이 피고인이자 미결수용자이며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했어야 하는 그의 처지를 실감하게 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앉았다.

최씨의 국경인 의혹 파문이 본격화한 후 처음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된 두 사람은 인사는커녕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최씨가 들어와 앉을 때는 이경재 변호사가 일어선 박 전 대통령쪽을 자연스럽게 ‘가리면서’ 곧장 자리에 앉도록 안내했다.

사진·영상 취재진에게 허용된 약 2분간의 촬영시간은 물론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두 사람의 행동은 이른바 ‘40년 우정’이 무색할 정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직후 유 변호사와 잠시 귀엣말을 나누는 것을 제외하고 재판이 진행된 약 3시간(휴정 10분 포함) 동안 검사들이 앉아 있는 정면방향을 응시했다.

그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려 일어선 후 재판부를 향해 답변했고, 그 외에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거나 의자 팔걸이에 몸을 의지하듯 울리고 빈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가끔 시선을 위쪽으로 향하며 고개를 저거나 물을 따라 마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눈에 띄는 행동이 없었다. 아무 메모도 하지 않았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 작게 한숨을 쉬는 것에 그의 불편한 심경이

김동철 “박 전 대통령, 역사 앞에 참회해야”

“분권개헌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 마련”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3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라며 “분권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정문회와 관련해선 “변화의 열망에 화답할 총리급 자질을 검증할 것”이라며 “도덕성 검증도 피할 수 없

다. 후보자 스스로 국민에게 소명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남북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오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긴박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논란거리가 되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강력한 안보시그널을 보내야 할 때 돌출적인 정상회담 언급은 한미 갈등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박근혜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직업은?” 질문에 “무직입니다”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정각에 법정에 입장한 재판부는 개정선언을 한 뒤 법정 옆 대기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입장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하며 법정에서 들어와 재판대 오른쪽에 앉았다. 옆자리엔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답답한 표정을 유지하던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일어서서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주소를 묻는 말엔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일이 맞느냐는 말엔 “그렇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으나 그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원하지 않습니다”고 답한 뒤 다시 작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들은 뒤 이어진 인 정선문에서 최순실씨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인적사항 확인에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재판 50분 전인 오전 9시 10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검색 사복을 입고 올림머리를 한 것처럼 뒷머리를 머리집개로 고정했지만,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가 달렸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물어 나는 듯했다.

최순실씨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공판기일에 출석해 법정에 익숙해진 듯인지 재판진행 중에 박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피고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보고 감정이 격해진 때문인지 자신의 직업과 주소 등을 대답하는 동안 울먹이듯 교를 흘렸었다. 검사가 발언할 때 품평하게 메모를 하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최씨는 공소사실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차례가 오자 “40여년간 지켜본 박 대통령께서 재판정에 나오게 한 게 죄인”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뇌물로 묶여 가는 것은 무리한 행위”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의 발언 후 최씨가 뭔가를 말하려는 듯 마이크를 잡아당기자 이경재 변호사가 말하는 모습이 ‘순간 포착’ 되기도 했다.

중간에 10분간의 휴정시간이 있었으나 최씨가 먼저 피고인 틀로 이동했고, 시차를 두고서 박 전 대통령이 이동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이 목격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이동할 때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과 배성태 전 홍보수석, 허일제 전 정무수석 등이 피고인측 관계자 자격으로 방청권을 얻어 피고인 출입구와 맞닿은 좌석에서 도열하듯 서서 응시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앞만 보고 이동했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표현은 각기 달랐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이라고 줄곧 불렀고, 검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 “전직 대통령” 등의 표현을 섞어 썼다.

유 변호사는 초반에는 “대통령인 피고인께서”, “피고인인 대통령 박근혜”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대통령께서”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최씨는 개명했기 때문에 거의 “최서원 피고인”으로 불렸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나온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은 “신 회장”, “신동민 피고인” 등으로 불렸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 된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기 싸움도 치열했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와 형사8부 한운재 부장검사 등 검사 8명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탄핵심판 패배대 대리인으로 활동한 유영하·체명성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법원 ‘엘리트 법관’ 출신인 김연장법률사무소 박장훈, 김진진 변호사가 지리를 잡았다. 이처럼 변호인석에는 피고인 3명을 위해 최소 14명의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